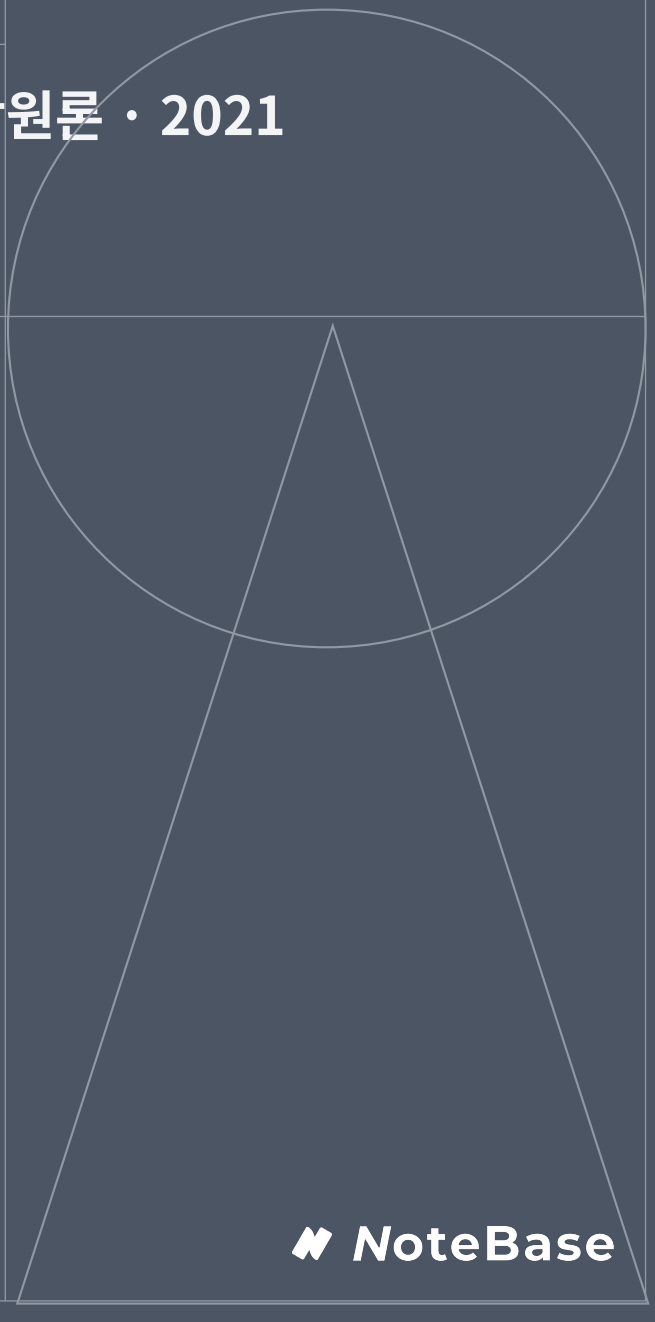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1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1

문 1. 갑(甲)국에서 홍차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홍차의 수요량이 5%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잼의 수요량이 12%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홍차 가격의 변화 외에 홍차와 잼의 수요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보기>

ㄱ. 홍차는 열등재(inferior goods)이다.

ㄴ. 잼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다.

ㄷ. 홍차의 판매 수입(revenue)은 증가한다.

ㄹ. 홍차와 잼은 보완재 관계를 갖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의 부호를 이용해 홍차의 총수입 변화와 홍차-잼의 관계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홍차 가격은 10% 상승, 홍차 수요량은 5% 감소, 잼 수요량은 12% 감소이다.
구해야 할 값: 홍차 수요의 가격탄력성, 잼에 대한 교차탄력성의 부호, 홍차 판매 수입의 변화이다.
주의할 조건: 다른 모든 조건이 불변이므로 잼 수요 변화는 홍차 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로 본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홍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_d = \frac{\%\Delta Q_d}{\%\Delta P}$이다. 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E_{jam,\,tea} = \frac{\%\Delta Q_{jam}}{\%\Delta P_{tea}}$이다. $|E_d| < 1$이면 비탄력적 수요이므로 가격이 오를 때 총수입은 증가한다. 교차탄력성이 음수이면 두 재화는 보완재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직접 주어졌으므로 탄력성과 그 부호를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홍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_d = \frac{-5\%}{10\%} = -0.5$이므로 절댓값은 0.5이다.
2. 절댓값이 1보다 작으므로 홍차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 감소폭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3. 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E_{jam,\,tea} = \frac{-12\%}{10\%} = -1.2$이다.
4. 교차탄력성이 음수이므로 홍차 가격이 오를 때 잼 수요가 함께 줄어드는 보완재 관계로 본다.
5. 열등재 여부는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하므로, 가격 변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선지 판단

① X: ㄱ은 틀리고 ㄷ은 맞다. ㄱ의 틀린 부분은 '홍차는 열등재'라는 판단이다. 열등재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이므로, 올바르게는 '이 자료만으로는 홍차가 열등재인지 판단할 수 없다'이다. ㄷ은 홍차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0.5이므로 맞다.
② X: ㄱ은 틀리고 ㄹ은 맞다. ㄱ의 틀린 부분은 '열등재'라는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소득과 수요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열등재 여부를 알 수 없다'이다. ㄹ은 교차탄력성이 음수이므로 맞다.
③ X: ㄴ은 틀리고 ㄹ은 맞다. ㄴ의 틀린 부분은 '잼의 수요는 탄력적'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계산되는 것은 잼 자신의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홍차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다. 올바르게는 '잼은 홍차와 보완재 관계에 있다' 또는 '잼의 교차탄력성은 음수이다'이다.
④ O: ㄷ과 ㄹ이 모두 맞다. ㄷ은 홍차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가격 상승 시 판매 수입이 증가하므로 맞고, ㄹ은 교차탄력성이 음수이므로 보완재 관계가 성립하여 맞다.

오답 포인트

'탄력적'이라는 말을 보면 곧바로 자신의 가격탄력성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제에서 잼의 수요량 변화는 잼 가격이 아니라 홍차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이므로 교차탄력성을 봐야 한다. 또 열등재는 가격이 아니라 소득 변화와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놓치면 ㄱ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화한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 뒤 그 변수에 맞는 탄력성을 연결하면 된다. 자기 가격이 변하면 가격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교차탄력성, 소득이 변하면 열등재·정상재 판단으로 나아간다. 총수입은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열등재는 소득으로, 보완재는 교차탄력성의 음수로, 총수입 증가는 비탄력적 수요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 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와 독점기업의 평균비용함수가 <보기>와 같다. 독점기업의 이윤과 이때의 소비자잉여는?

<보기>
• 시장수요: $Q = 210 - 2P$
• 평균비용: $AC = 5 + 2Q$

① 이윤: 800, 소비자잉여: 80
② 이윤: 900, 소비자잉여: 90
③ 이윤: 1,000, 소비자잉여: 100
④ 이윤: 1,100, 소비자잉여: 1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 MC$로 생산량과 가격을 구한 뒤,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시장수요는 $Q = 210 - 2P$, 평균비용은 $AC = 5 + 2Q$이다.
구해야 할 값: 독점기업의 이윤과 소비자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평균비용이 주어졌으므로 총비용은 $TC = AC \times Q$로 바꿔야 하고,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P = 105 - \frac{Q}{2}$, $TR = P \times Q$, $MR = \frac{dTR}{dQ}$, $TC = AC \times Q$, $MC = \frac{dTC}{dQ}$, $\pi = TR - TC$,
CS=(1)/(2)×(최고지불가격-시장가격)× 거래량을 사용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독점기업이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그 생산량을 시장수요에 대입해 가격을 구한 뒤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시장수요 $Q = 210 - 2P$를 역수요로 바꾸면 $P = 105 - \frac{Q}{2}$이다.
2. 총수입은 $TR = (105 - \frac{Q}{2})Q = 105Q - \frac{Q^2}{2}$이므로 한계수입은 $MR = 105 - Q$이다.
3. 총비용은 $TC = (5 + 2Q)Q = 5Q + 2Q^2$이므로 한계비용은 $MC = 5 + 4Q$이다.
4.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를 적용하면 $105 - Q = 5 + 4Q$이므로 $Q = 20$이다.
5. 가격은 $P = 105 - \frac{20}{2} = 95$이다.
6. 평균비용은 $AC = 5 + 2 \times 20 = 45$이므로 이윤은 $(95 - 45) \times 20 = 1000$이다.
7. 소비자잉여는 $\frac{1}{2} \times (105 - 95) \times 20 = 10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이윤은 1000, 소비자잉여는 100이므로 '이윤 800, 소비자잉여 80'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이윤 1000, 소비자잉여 100'이다.
② X. $MR = MC$에서 구한 독점균형을 대입하면 이윤 1000, 소비자잉여 100이 나온다. 따라서 '이윤 900, 소비자잉여 90'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이윤 1000, 소비자잉여 100'이다.
③ O. 독점균형 생산량은 $Q = 20$, 가격은 $P = 95$이고, 이윤은 1000, 소비자잉여는 100이므로 제시값이 정확하다.
④ X. 실제 계산값보다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모두 크게 잡은 선택지이다. 틀린 표현은 '이윤 1100, 소비자잉여 110'이고, 올바르게는 '이윤 1000, 소비자잉여 100'이다.

오답 포인트

평균비용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를 한계비용으로 바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 면적이므로 직사각형처럼 계산하거나 절편과 가격 차이를 잘못 읽으면 80, 90, 110 같은 오답값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계산문제는 수요를 역수요로 바꾼 뒤 TR에서 MR을 구하고, AC를 TC로 바꿔 MC를 만든 다음 $MR = MC$로 생산량을 정한다. 그 뒤 가격, 이윤, 소비자잉여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MR = MC$에서 수량을 정하고,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삼각형이다.

NoteBase

문 3. 갑(甲)회사가 2020년에 생산한 뒤 재고로 보관중이던 제품을 2021년에 소비자 을(乙)에게 판매하였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품의 가치가 2020년 GDP에 영향을 주지 않되, 2021년 GDP의 소비에 더해진다.

② 제품의 가치가 2020년 GDP에 영향을 주지 않되, 2021년 GDP의 투자에 더해진다.

③ 제품의 가치가 2020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고, 2021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며, 2021년 GDP의 소비에서 감해진다.

④ 제품의 가치가 2020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고, 2021년 GDP의 소비에 더해지며, 2021년 GDP의 투자에서 감해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고로 남은 생산물이 생산 시점에는 재고투자로, 판매 시점에는 소비와 재고감소로 반영된다는 GDP 지출항목의 처리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갑 회사는 2020년에 제품을 생산했지만 그해에는 팔지 못하고 재고로 보관하였다.
핵심 사실 2: 그 재고품을 2021년에 소비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GDP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생산을 잡고, 팔리지 않은 생산은 재고투자로 처리한다.

핵심 개념

재고투자는 일정 기간에 생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재화를 그 기간의 투자로 계산하는 것이다.
적용 요건은 해당 재화가 그해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그해 최종수요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2020년에 생산만 되고 팔리지 않은 제품 가치는 2020년 GDP의 투자에 포함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생산연도와 판매연도를 나누어 본다. 2020년에는 재고가 늘었으므로 투자에 더해지고, 2021년에는 그 재고가 소비자에게 팔리므로 소비에 더해지지만 동시에 재고가 줄어 투자에서는 같은 금액만큼 빠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제품의 가치가 2020년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2020년에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았으므로 2020년 GDP의 투자, 즉 재고투자에 포함된다. 2021년에는 소비에 더해지는 점만 맞고, 올바르게는 '2020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고 2021년 GDP의 소비에 더해진다'이다.
② X: 2020년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과 2021년 GDP의 투자에 더해진다는 부분이 모두 틀리다. 2020년에는 재고투자로 포함되고, 2021년 판매는 소비 증가와 재고감소를 뜻하므로 투자는 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2020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고, 2021년에는 소비에 더해지며 투자에서는 감해진다'이다.
③ X: 2020년 GDP의 투자에 더해진다는 부분은 맞지만, 2021년 GDP의 투자에 더해지고 소비에서 감해진다는 부분이 틀리다. 재고를 소비자에게 팔면 2021년에는 소비가 늘고 재고가 줄어 투자에서 빠진다. 올바르게는 '2021년 GDP의 소비에 더해지며 2021년 GDP의 투자에서 감해진다'이다.
④ O: 2020년 생산분은 그해 팔리지 않았으므로 재고투자로서 2020년 GDP의 투자에 포함된다. 2021년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소비에 더해지고, 이미 잡혀 있던 재고가 줄어드므로 2021년 GDP의 투자에서는 같은 금액만큼 감해진다.

오답 포인트

판매 시점만 보고 GDP를 생각하면 ①이나 ②처럼 2020년 처리를 놓치기 쉽다. 또 ③처럼 2021년 판매를 투자 증가로 오해하면 재고감소가 투자 항목의 음수로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 관련 GDP 문제는 먼저 생산연도를 확인하고, 그해 안 팔렸으면 재고투자로 넣는다. 다음 해에 팔리면 그 해의 소비 또는 다른 최종지출에 더하고, 동시에 재고감소만큼 투자에서 뺀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 시점은 재고투자, 판매 시점은 소비 증가와 재고투자 감소로 처리된다.

NoteBase

문 4. 재화 X의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동질적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장에 속한 기업의 한계비용(MC)은 그 기업의 산출량이 q일 때 $MC(q) = 2q$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장기균형(long-run equilibrium) 상태에 있으며, 각 기업의 산출량은 10이다. 각 기업의 총고정비용(total fixed cost)은 100달러이다. 각 기업의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은?

① 5달러

② 10달러

③ 15달러

④ 20달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에서 $P = MC = ATC$가 성립한다는 점과 한계비용으로부터 평균가변비용을 구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한계비용은 $MC(q) = 2q$, 장기균형 산출량은 10, 총고정비용은 100달러이다.
구해야 할 값: 평균가변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므로 가격은 ATC와 같고, 그 생산량에서 $MC = ATC$가 된다.

사용할 공식

핵심 관계는 $P = MC = ATC$, $ATC = AFC + AVC$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완전경쟁과 장기균형이 명시되었으므로 산출량 10에서 한계비용이 곧 평균총비용이 되고, 총고정비용으로 평균고정비용을 구하면 평균가변비용을 바로 분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장기균형의 완전경쟁기업에서는 $P = MC = ATC$이다.
2. 산출량 $q = 10$에서 $MC = 2q = 20$이므로 $ATC = 20$달러이다.
3. 총고정비용이 100달러이고 산출량이 10이므로 $AFC = 100/10 = 10$달러이다.
4. 따라서 $AVC = ATC - AFC = 20 - 10 = 10$달러이다.
5. 같은 결론은 $VC(q) = \int_0^q 2x dx = q^2$, $AVC = VC/q = q$이므로 $q = 10$에서 10달러라는 방식으로도 확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5달러는 $MC(q) = 2q$를 적분하면서 $VC = q^2/2$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값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VC = q^2$이므로 평균가변비용은 10달러이다.
② O: 산출량 10에서 $MC = 20$, 장기균형이므로 $ATC = 20$, 또 $AFC = 10$이어서 $AVC = 20 - 10 = 10$달러가 된다.
③ X: 15달러는 평균총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을 잘못 섞어 잡은 값일 뿐이다. 올바르게는 $AVC = ATC - AFC = 20 - 10 = 10$달러이다.
④ X: 20달러는 산출량 10에서의 한계비용이자 평균총비용 값이다. 올바르게는 여기서 평균고정비용 10달러를 뺀 평균가변비용 10달러이다.

오답 포인트

평균가변비용을 한계비용과 같은 값으로 착각하거나, 장기균형 조건 $P = MC = ATC$를 놓치면 ④로 흐르기 쉽다. 또 $ATC = AFC + AVC$ 분해를 하지 않으면 총고정비용 정보가 왜 주어졌는지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장기균형 문제는 먼저 $P = MC = ATC$를 놓고, 고정비용이 주어지면 AFC를 구한 뒤 $AVC = ATC - AFC$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P = MC = ATC$이고, $ATC = AFC + AVC$이므로 평균가변비용은 평균총비용에서 평균고정비용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5. 복점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갑(甲)과 을(乙)이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려한다. 상대의 결정에 따른 갑과 을의 보수함수가 <보기>와 같을 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괄호의 첫째, 둘째 값은 각각 갑과 을의 보수를 의미한다.)

<보기>

		을(乙)	
		가격유지	가격할인
갑(甲)	가격유지	(15, 15)	(5, 10)
	가격할인	(10, 5)	(7, 7)

①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두 기업의 우월전략이다.

② 유일한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③ 내쉬균형에서 두 기업은 서로 같은 전략을 선택한다.

④ 갑과 을은 공범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처해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표에서 각 기업의 최적반응과 내쉬균형의 개수를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을의 전략이 가격유지일 때와 가격할인일 때를 나누어 갑의 보수를 비교한다.
2. 같은 방식으로 갑의 전략별로 을의 보수를 비교해 최적반응을 찾는다.
3. 서로의 최적반응이 동시에 성립하는 칸만 내쉬균형으로 판단한다.

핵심 근거

을이 가격유지이면 갑의 보수는 가격유지 15, 가격할인 10이므로 갑의 최적반응은 가격유지이다.
을이 가격할인이면 갑의 보수는 가격유지 5, 가격할인 7이므로 갑의 최적반응은 가격할인이다.
갑에 대해서도 같은 대칭 구조가 성립하므로 내쉬균형은 (가격유지, 가격유지)와 (가격할인, 가격할인)의 두 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을이 가격유지를 택하면 갑은 가격유지가 유리하지만, 을이 가격할인을 택하면 갑은 가격할인이 유리하다. 을도 대칭적으로 같으므로 가격유지는 두 기업의 우월전략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우월전략'이며, 올바르게는 '상대가 가격유지를 택했을 때의 최적반응'이다.
② X: 상대가 가격유지이면 가격유지, 상대가 가격할인이면 가격할인이 최적반응이므로 내쉬균형은 (가격유지, 가격유지)와 (가격할인, 가격할인)의 두 개이다. 틀린 표현은 '유일한'이며, 올바르게는 '두 개의 내쉬균형'이다.
③ O: 두 내쉬균형 모두에서 갑과 을은 서로 같은 전략을 선택한다. 하나는 둘 다 가격유지이고, 다른 하나는 둘 다 가격할인이다.
④ X: 공범자의 딜레마라면 각 기업에 가격할인이라는 우월전략이 존재하고 균형이 (가격할인, 가격할인) 하나로 수렴한다. 이 표에서는 우월전략이 없고 (가격유지, 가격유지)도 내쉬균형이므로 공범자의 딜레마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공범자의 딜레마'이며, 올바르게는 '두 개의 내쉬균형을 가진 조정게임 성격의 상황'이다.

오답 포인트

우월전략이 있는지와 내쉬균형이 몇 개인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④의 공범자의 딜레마 표현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먼저 각 행과 열에서 더 큰 보수에 표시를 하면 우월전략 부재와 내쉬균형 2개가 바로 드러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수표 문제는 먼저 상대 전략별로 각 플레이어의 더 큰 보수를 찾아 최적반응을 표시한다. 그다음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만 내쉬균형으로 세면 된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은 모든 상대 전략에서 같아야 하고, 내쉬균형은 최적반응의 교집합이다.

NoteBase

문 6. 총수요-총공급모형에서 단기에 균형물가수준을 하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예상 물가수준의 하락

② 태풍으로 인한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파괴

③ 장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④ 해외 경기의 호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 이동 요인과 단기총공급 이동 요인을 구분하고, 그 결과 단기 균형물가수준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의 지출 총액으로서 물가수준이 주어졌을 때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총량이다. 결정 차이축은 지출 요인이다. 키워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다.
단기총공급은 기업이 단기에 각 물가수준에서 생산하려는 총산출량이다. 결정 차이축은 생산비용과 기대물가이다. 키워드는 명목임금, 원자재 가격, 기대물가, 공급충격이다.
이 문항에서는 기대물가 하락은 단기총공급 증가 요인이고, 사회간접자본 파괴는 단기총공급 감소 요인이며, 경기 낙관과 해외 호황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예상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근로자와 기업이 낮은 물가상승을 예상하므로 명목임금과 비용 압력이 완화되어 단기총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단기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② X
태풍으로 인한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파괴는 생산과 운송 여건을 악화시켜 단기총공급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부정적 공급충격이다. 틀린 부분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단기 균형물가수준을 상승시키고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③ X
장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틀린 부분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총수요 증가로 단기 균형물가수준을 상승시키는 경우이다.

④ X
해외 경기의 호황은 수출 증가를 통해 순수출을 늘리므로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틀린 부분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총수요 증가로 단기 균형물가수준을 상승시키는 경우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경기 호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읽히지만, 총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므로 단기 물가수준은 오히려 상승한다. ②도 재해라는 사건 자체만 보고 수요 감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선지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 파괴로 인한 공급축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요인이 지출을 바꾸는지, 생산비용과 공급능력을 바꾸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지출 증가 요인이면 총수요 우측 이동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생기고, 기대물가 하락처럼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면 단기총공급 우측 이동으로 물가하락 압력이 생긴다.

암기 포인트

총수요는 지출, 단기총공급은 비용과 기대물가이다. 기대물가 하락은 단기총공급 증가로 물가하락이다.

NoteBase

문 7. 1985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8이고, 202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45라고 하자. 1985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600원이었다. 1985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2020년 화폐로 환산할 경우 해당하는 가격은?

① 5,100원

② 5,250원

③ 5,450원

④ 5,600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이용해 과거 가격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98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8,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45, 1985년 자장면 가격은 6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1985년 자장면 한 그릇의 2020년 화폐가치이다.
주의할 조건: 가격 차이가 아니라 물가지수 비율 245/28을 과거 가격에 곱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환산가격 = 기준연도 가격 × (비교연도 소비자물가지수)/(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수준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 주므로, 1985년 가격에 지수 비율 245/28을 곱하면 2020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물가지수 비율을 구하면 $245/28 = 8.75$이다.
2. 1985년 가격 600원에 이 비율을 곱하면 $600 \times 8.75 = 5,250$이다.
3. 따라서 1985년 자장면 한 그릇의 2020년 화폐가치는 5,25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는 5,250원이므로 5,100원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5,100원"이고, 올바르게는 "5,250원"이다. 이는 물가지수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잡은 과소계산이다.
② O: $600 \times 245/28 = 5,250$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을 정확히 반영한 값이다.
③ X: 계산 결과는 5,250원이므로 5,450원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5,450원"이고, 올바르게는 "5,250원"이다. 이는 물가지수 비율이나 곱셈을 중간에 과대 계산한 값이다.
④ X: 계산 결과는 5,250원이므로 5,600원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5,600원"이고, 올바르게는 "5,250원"이다. 이는 지수 비율을 실제보다 크게 잡아 환산한 과대계산 값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 문제는 지수의 차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비율을 써야 한다. 245/28을 대충 반올림하거나 곱셈을 서둘러 처리하면 ①, ③, ④ 같은 오답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거 금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바꾸는 문제는 먼저 현재 지수/과거 지수를 만든 뒤 그 비율을 과거 금액에 곱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현재 물가지수가 더 크므로 환산가격도 원래 금액보다 커져야 한다는 점으로 검산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화폐가치 환산은 과거 가격 × 현재 물가지수/과거 물가지수이다.

NoteBase

문 8. 완전대체재 관계인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김씨의 효용함수는 $U = X + Y$로 주어진다. (여기서 U는 효용의 크기, X와 Y는 각 재화의 수량을 의미한다.) 김씨는 두 재화의 소비를 위해 총 50원을 지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X재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2원이고, Y재의 가격은 단위당 10원이다. 이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선택에서 김씨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는?

① 5

② 25

③ 30

④ 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대체재의 효용극대화에서 재화별 단위당 효용 대비 가격, 즉 MU/P를 비교해 최적소비와 최대효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효용함수는 $U = X + Y$이다.
예산은 50원이다.
가격은 $P_X = 2, P_Y = 10$이므로 예산제약식은 $2X + 10Y = 50$이다.
구해야 할 값은 효용을 극대화할 때의 최대효용이다.

사용할 공식

완전대체재는 각 재화의 단위당 효용 대비 가격을 비교한다.
$MU_X/P_X = 1/2, MU_Y/P_Y = 1/1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U = X + Y$에서 X와 Y의 한계효용이 각각 1로 일정하므로, 1원당 더 큰 효용을 주는 재화에 예산을 모두 쓰는 것이 효용극대화가 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효용함수 $U = X + Y$이므로 $MU_X = 1, MU_Y = 1$이다.
2. 1원당 효용을 비교하면 $MU_X/P_X = 1/2, MU_Y/P_Y = 1/10$이므로 X재가 더 유리하다.
3. 따라서 50원을 모두 X재에 지출하면 $X = 50/2 = 25, Y = 0$이다.
4. 최대효용은 $U = 25 + 0 = 2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5는 50원을 모두 Y재에 지출해 $Y = 5$일 때의 효용값이다. 그러나 Y재의 1원당 효용은 1/10으로 X재의 1/2보다 작아 최적선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X재만 25단위 소비하여 효용 25를 얻는다.
② O: X재의 1원당 효용이 더 크므로 예산을 모두 X재에 쓰는 것이 최적이다. 이때 $X = 25$, $Y = 0$, $U = 25$이므로 맞는 선택지이다.
③ X: 효용 30을 얻으려면 최소한 X재만 소비하더라도 $X = 30$이 필요하고 지출은 60원이 된다. 예산 50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최대효용이 25이다.
④ X: 효용 60은 X재만 소비해도 120원이 필요하고, Y재를 섞으면 더 비싸진다. 예산 50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올바르게는 최대효용이 25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대체재에서 두 재화를 나누어 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절대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①처럼 Y재만 샀을 때의 가능한 효용 5를 최적효용으로 착각하는 점과, ③·④처럼 예산제약을 넘는 숫자를 고르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대체재는 먼저 MU/P를 비교한다. 더 큰 값을 주는 재화에 예산을 전부 배정한 뒤, 그 소비량을 효용함수에 대입해 최대효용을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대체재는 MU/P가 큰 재화에 몰아쓰고, 같으면 어느 조합도 무차별이다.

NoteBase

문 9. <보기>와 같은 경제에서 자연산출량은 6,000이다. 이 경제의 국민소득을 자연산출량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다면, 현재의 정부지출에서 더 늘려야 하는 정부지출은?

<보기>

C=200+0.8(Y-T), I=1,000, G=200, T=500, NX=0

(단,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NX는 순수출, Y는 국민소득)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케인스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을 구한 뒤 정부지출승수 $1/(1-c)$를 이용해 자연산출량 6,000에 맞추기 위한 추가 정부지출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함수는 $C = 200 + 0.8(Y - T)$이고 조세 $T = 500$, 투자 $I = 1{,}000$, 정부지출 $G = 200$, 순수출 $NX = 0$이다.

따라서 $C = 200 + 0.8(Y - 500) = 0.8Y - 200$이다.

사용할 공식

재화시장 균형은 $Y = C + I + G + NX$이다.

정부지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0.8일 때 $1/(1-0.8) = 5$이다.

계산 과정

현재 균형국민소득은 $Y = (0.8Y - 200) + 1{,}000 + 200$이므로 $0.2Y = 1{,}000$, $Y = 5{,}000$이다.

자연산출량 6,000까지 올리려면 국민소득을 1,000만큼 늘려야 한다.

정부지출승수가 5이므로 필요한 추가 정부지출 ΔG는 $5\Delta G = 1{,}000$을 만족해야 하므로 $\Delta G = 2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0만 늘리면 승수 5에 의해 국민소득은 500만 증가한다. 필요한 증가분은 1,000이므로 부족하다. 틀린 표현은 추가 정부지출을 100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200을 늘려야 한다.
② O: 현재 균형국민소득 5,000을 자연산출량 6,000으로 맞추려면 1,000의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 정부지출승수 5를 적용하면 추가 정부지출은 200이 된다.
③ X: 300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1,500 증가하여 6,500이 된다. 틀린 표현은 필요한 추가 정부지출을 300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200만 늘리면 충분하다.
④ X: 400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2,000 증가하여 7,000이 된다. 틀린 표현은 목표 소득을 맞추는 데 400이 필요하다고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200이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소비함수에서 조세를 반영해 자율소비 부분이 -200으로 바뀐다는 점을 놓치거나, 먼저 현재 균형국민소득 5,000을 구하지 않고 바로 6,000만 보고 선택하면 오답이 나오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목표를 맞추는 문제는 현재 균형소득을 먼저 구한 뒤 목표소득과의 차이 ΔY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승수식 $\Delta Y = \text{승수} \times \Delta G$로 역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는 $1/(1 - MPC)$이고, 필요한 재정확대 규모는 목표 소득증가분/승수이다.

NoteBase

문 10. 4개의 기업이 각각 밀가루, 치즈, 토마토, 피자를 생산하는 나라를 상정하자. 이외에 생산되는 다른 재화는 없다. 밀가루, 치즈, 토마토 생산은 토지와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지만, 피자의 생산에는 토지와 노동력 외에도 밀가루, 치즈, 토마토를 필요로 한다. 이 경제 내 생산된 밀가루, 치즈, 토마토는 모두 피자 회사에 판매되어 피자 생산에 사용된다. <보기>는 각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각 생산요소가 벌어들인 소득과 산출물의 판매액을 나타낸다. 이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보기>

	밀가루 회사	치즈 회사	토마토 회사	피자 회사
총임금	25	28	30	75
총지대	20	47	15	45
판매액	55	80	60	350

① 158

② 195

③ 285

④ 35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하여 GDP를 최종재 가치 또는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밀가루 회사 판매액 55, 치즈 회사 판매액 80, 토마토 회사 판매액 60, 피자 회사 판매액 350
- 밀가루, 치즈, 토마토는 모두 피자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이다.

구해야 할 값:
- 이 나라의 GDP

주의할 조건:
- 중간재인 밀가루, 치즈, 토마토를 별도로 더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 피자 회사의 판매액 350은 최종재 가치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GDP는 최종재 가치의 합 또는 각 기업의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한다.
GDP = 최종재 판매액의 합 = 부가가치의 합
이 문제에서는 밀가루, 치즈, 토마토가 모두 피자 생산에 쓰이므로 최종재는 피자뿐이다. 따라서 피자 판매액 350을 바로 GDP로 볼 수 있다.

계산 과정

1. 밀가루, 치즈, 토마토는 모두 피자 회사에 판매되어 중간재가 된다.
2. 최종재는 소비 가능한 피자뿐이므로 최종재 기준 GDP는 350이다.
3. 부가가치 기준으로 확인해도 같다.
$55 + 80 + 60 + (350 - 55 - 80 - 60) = 55 + 80 + 60 + 155 = 350$
4. 따라서 GDP는 35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58은 총임금 25 + 28 + 30 + 75의 합이다.
- GDP는 노동소득만이 아니라 지대와 이윤까지 포함한 부가가치 전체이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GDP는 총임금의 합이다'이다. 올바르게는 'GDP는 최종재 가치 또는 임금·지대·이윤을 포함한 부가가치의 합이다'이다.

② X
- 195는 밀가루, 치즈, 토마토의 판매액 55 + 80 + 60의 합이다.
- 이 금액은 모두 피자 생산에 들어간 중간재 가치이므로 GDP로 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
- 틀린 표현은 '중간재 판매액의 합이 GDP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중간재는 최종재 가치 안에 이미 포함되므로 별도 합산하지 않는다'이다.

③ X
- 285는 표에 보이는 총임금과 총지대 25 + 28 + 30 + 75 + 20 + 47 + 15 + 45의 합이다.
- 그런데 피자 회사의 판매액 350에서 중간재 비용 195와 표에 보이는 임금·지대 120을 빼면 이윤 35가 남는다. 이 이윤도 GDP에 포함되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표에 나온 임금과 지대만 더하면 GDP가 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요소소득 접근에서는 임금·지대뿐 아니라 이윤까지 포함해야 GDP가 된다'이다.

④ O
- 피자는 이 경제의 유일한 최종재이므로 피자 회사의 판매액 350이 곧 GDP이다.
- 부가가치로 계산해도 총합이 350이므로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GDP를 임금 합계로 축소해서 보는 실수를 노린 선지이다. ②는 중간재 판매액을 그대로 GDP로 착각하게 만든다. ③은 표에 보이는 요소소득만 더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피자 회사의 이윤 35가 빠져 있어 과소계산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소득 문제에서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 생산에 모두 투입되면 먼저 중간재로 분류한다. 그다음 최종재 판매액만 잡거나,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더해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요소소득으로 풀 때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 모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최종재 한 번만 계산하고, 단계별로 풀면 부가가치만 더한다.

NoteBase

문 11. <보기>는 유동성선호 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에서 화폐 수요(demand for mone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가장 적절하게 묶은 것은?

<보기>
(가)은(는)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이(가)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나). 한편, (다)은(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의미하므로, (다)이(가)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라).

① (가): 이자율, (나): 감소한다, (다): 물가수준, (라): 증가한다
② (가): 국민소득, (나): 증가한다, (다): 물가수준, (라): 증가한다
③ (가): 물가수준, (나): 증가한다, (다): 국민소득, (라): 증가한다
④ (가): 이자율, (나): 증가한다, (다): 국민소득, (라):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동성선호이론에서 화폐수요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인 이자율과 물가수준의 의미, 그리고 각 변수 변화에 따른 화폐수요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자율은 화폐를 보유할 때 포기하는 수익률이므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다.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를 주는 자산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커져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물가수준은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 필요한 명목 화폐액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물가수준이 오르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액이 커지므로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국민소득은 거래 규모를 키우는 변수이지만, 이 문항의 문장처럼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 자체를 직접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시된 것은 물가수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를 이자율로 보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라는 설명이 정확하다. 이자율 상승은 화폐수요 감소를 뜻하므로 (나)는 감소한다가 맞고, 물가수준이 오르면 거래에 필요한 명목 화폐액이 늘어나므로 (다)는 물가수준, (라)는 증가한다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의 국민소득이다.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뜻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아니라 이자율이므로, 이 선지는 (가)를 이자율로 고쳐야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의 물가수준, (나)의 증가한다, (다)의 국민소득이다. 기회비용은 이자율이며 이자율이 오르면 화폐수요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또한 제시문에서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직접 설명하는 변수는 국민소득이 아니라 물가수준이다.
④ X: (가)의 이자율은 맞지만 (나)의 증가한다가 틀리다. 이자율이 오르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또한 (다)도 국민소득이 아니라 물가수준으로 보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에 맞다.

오답 포인트

국민소득도 화폐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②나 ④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첫 문장은 기회비용을 묻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율이 들어가야 하고, 둘째 문장은 거래에 필요한 명목 화폐액을 묻고 있으므로 물가수준 상승 시 화폐수요 증가라는 연결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수요 문제는 먼저 변수의 의미를 분리해서 본다. 기회비용을 묻는 문장은 이자율, 거래에 필요한 명목 화폐액을 묻는 문장은 물가수준으로 연결한 뒤, 이자율 상승이면 화폐수요 감소, 물가상승이면 화폐수요 증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이자율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라서 오르면 화폐수요가 줄고, 물가수준은 거래에 필요한 돈의 크기라서 오르면 화폐수요가 늘어난다.

NoteBase

문 12. 갑(甲)의 소득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100, 화재가 발생할 때 36이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0.5이고 갑(甲)의 효용함수가 U=√(소득)이라고 할 때,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의 값은?

① 0.25

② 2

③ 4

④ 6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효용에서 확실성등가를 구한 뒤 기대소득과의 차이로 위험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화재가 없으면 소득 100, 화재가 나면 소득 36, 화재 확률 0.5이다.
구해야 할 값: 위험프리미엄이다.
주의할 조건: 효용함수 U=√(소득) 이므로 먼저 기대소득이 아니라 기대효용을 구하고, 그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성등가를 찾아야 한다.

사용할 공식

기대효용은 $EU = 0.5\sqrt{100} + 0.5\sqrt{36}$이다.
확실성등가 CE는 $\sqrt{CE} = EU$를 만족하는 소득이다.
위험프리미엄은 $RP = E(Y) - CE$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위험프리미엄은 불확실한 소득의 기대값과, 그 불확실성을 제거한 확실한 소득값인 확실성등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대효용은 $EU = 0.5 \times \sqrt{100} + 0.5 \times \sqrt{36} = 0.5 \times 10 + 0.5 \times 6 = 8$이다.
2. 확실성등가 CE는 $\sqrt{CE} = 8$을 만족하므로 $CE = 64$이다.
3. 기대소득은 $E(Y) = 0.5 \times 100 + 0.5 \times 36 = 68$이다.
4. 위험프리미엄은 $RP = 68 - 64 = 4$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①의 '0.25'는 위험프리미엄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대소득 68에서 확실성등가 64를 뺀 4가 위험프리미엄이다.
- 위험프리미엄은 효용 차이나 확률 자체로 계산하지 않고 소득 단위의 차이로 계산한다.

② X
- ②의 '2'는 잘못된 값이다. 올바르게는 $68 - 64 = 4$이므로 위험프리미엄은 4이다.
- 2처럼 작은 값은 확실성등가를 잘못 구하거나 기대소득과의 차이를 절반만 반영할 때 나오는 오산이다.

③ O
- 기대효용은 8, 확실성등가는 64, 기대소득은 68이다.
- 따라서 위험프리미엄은 $68 - 64 = 4$이므로 ③이 옳다.

④ X
- ④의 '6'은 잘못된 값이다. 올바르게는 위험프리미엄이 6이 아니라 4이다.
- 6은 확실성등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거나 기대효용과 기대소득을 직접 비교할 때 생기는 오산이다.

오답 포인트

위험프리미엄을 바로 기대소득에서 화재손실을 빼는 값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기대소득 68을 먼저 구해 놓고도 효용함수 $U=\sqrt{}$(소득)를 반영한 확실성등가 64를 거치지 않으면 정답 4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프리미엄 문제는 상태별 소득으로 기대효용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성등가를 찾은 다음, 마지막에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빼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프리미엄은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13.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독점기업의 이윤은 단일가격(uniform pricing)의 경우보다 증가한다.
ㄴ. 완전한 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잉여는 0이다.
ㄷ. 독점기업이 완전한 가격차별을 행하는 경우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은 일치하게 된다.
ㄹ. 두 소비자 그룹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3차 가격차별의 경우 두 그룹 중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는 소비자 그룹의 소비자잉여는 단일가격을 부과하는 상황(uniform pricing)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일가격, 완전한 가격차별, 3차 가격차별의 핵심 성질과 그에 따른 이윤·소비자잉여·한계수입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일가격은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을 받는 방식이다.
완전한 가격차별은 각 단위마다 소비자의 지불의사만큼 가격을 받아 소비자잉여를 모두 흡수하는 방식이다.
3차 가격차별은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수요탄력성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은 맞지만 ㄷ을 빠뜨려 틀렸다. 완전한 가격차별에서는 추가 1단위 판매에서 얻는 한계수입이 그 단위의 지불의사와 같아지므로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골라야 한다.
② X: ㄴ은 맞지만 ㄹ이 틀리고 ㄱ, ㄷ도 빠져 있다. 3차 가격차별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집단의 소비자잉여가 단일가격 때보다 반드시 낮아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올바르게는 ㄹ을 제외하고 ㄱ, ㄴ, ㄷ을 골라야 한다.
③ O: ㄱ, ㄴ, ㄷ만 포함해 옳은 진술만 정확히 묶었다. 가격차별은 단일가격보다 독점기업의 이윤을 늘리고, 완전한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0이 되며, 이때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과 일치한다.
④ X: ㄱ, ㄴ, ㄷ은 맞지만 ㄹ까지 포함해 틀렸다. 틀린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정이다. 올바르게는 3차 가격차별에서 집단별 소비자잉여 변화는 수요조건과 단일가격 대비 가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완전한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0이고 한계수입곡선이 수요곡선과 일치한다는 두 성질을 하나만 기억해 ㄷ을 놓치기 쉽다. 또 ㄹ의 '수밖에 없다' 같은 절대 표현은 후생 비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차별 문항은 먼저 차수별 특징을 대응시키면 판단이 빨라진다. 1차 가격차별이면 소비자잉여 0,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 일치를 바로 떠올리고, 3차 가격차별이면 집단별 가격 차이는 인정하되 단일가격과의 후생 비교를 무조건적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1차 가격차별은 소비자잉여 0, MR=D이고, 3차 가격차별은 집단별 차등가격이지만 후생 변화는 항상 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유동성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화폐보유에 대한 비용이 아주 크다.

②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어서 이자율이 아주 크게 변해야만 실질화폐수요가 변화한다.

③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효하다.

④ 유동성함정에서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면 주어진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동성함정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성함정은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운 하한(zero lower bound)에 묶여, 추가 화폐공급이 이자율 하락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 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까워 화폐수요 곡선(LM 곡선)이 수평이 된다. 즉 이자율이 최저 수준에 고착된 채, 늘어난 화폐공급 증가분이 모두 보유수요로 흡수되어 이자율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뺀 값 $r = i - \pi^e$(여기서 r은 실질이자율, i는 명목이자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이므로, 명목이자율이 하한에 묶여 있어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질이자율은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동성함정에서는 이자율이 매우 낮아 화폐를 보유할 때 포기하는 이자수익, 즉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아주 작다. 틀린 부분은 "비용이 아주 크다"이다. 올바르게는 "화폐보유에 대한 비용이 아주 작다"이다.
② X: 유동성함정의 핵심은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매우 탄력적이라는 점이다. 틀린 부분은 "비탄력적이어서"이다. 올바르게는 "유동성함정 구간에서는 화폐수요 곡선이 수평에 가까워, 이자율이 최저 수준에 고착된 채 늘어난 화폐공급 증가분을 모두 흡수한다"이다.
③ X: 유동성함정에서는 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하고, 총수요를 직접 늘리는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하다고 본다. 틀린 부분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효하다"이다. 올바르게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하다"이다.
④ O: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뺀 값 $r = i - \pi^e$이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면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유동성함정에서는 명목이자율이 0 하한에 묶여 더 내려갈 수 없으므로, 명목이자율 경로 대신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서만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면 주어진 명목이자율 수준에서도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비탄력적"과 ③의 "통화정책이 더 유효"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한 상태가 아니라, 이자율이 최저 수준에 고착되어 늘어난 화폐를 계속 보유하려는 상태라는 점을 거꾸로 묻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동성함정이 보이면 먼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점,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매우 탄력적이어서 LM 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점, 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점을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질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관계를 적용하면 ④가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유동성함정은 돈을 풀어도 금리가 잘 안 내려가는 구간이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이자율을 낮춘다.

NoteBase

문 15. 개방경제(open economy) 모형에서 한국 경제 내 재정적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을 가리킨다.)

① 순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② 순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③ 순자본유출은 감소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감소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④ 순자본유출은 감소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감소하여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방경제 모형에서 재정적자 증가가 국민저축, 순자본유출, 외환시장의 원화공급, 원/달러 환율에 어떤 연쇄효과를 만드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한국 경제의 재정적자가 증가한 상황이다.
개방경제에서는 재정적자 증가는 국민저축 감소로 이어진다.
문제의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므로 값이 하락하면 원화가 절상된 것이다.

핵심 개념

순자본유출은 국내 자금이 해외로 순유출되는 규모이며,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감소한다.
개방경제 모형에서 순자본유출은 외환시장에서 해외자산을 사기 위해 공급되는 원화의 양과 연결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재정적자 증가 → 국민저축 감소 → 대부자금 공급 감소 → 국내 이자율 상승 → 순자본유출 감소 →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 감소 → 원/달러 환율 하락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국민저축이 줄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순자본유출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순자본유출이 줄면 외환시장의 원화공급도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순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순자본유출은 감소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감소"이다.
② X. 재정적자 증가로 순자본유출이 줄어드는 점부터 틀렸고, 원화공급이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방향이 된다. 틀린 표현은 "순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순자본유출은 감소하고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이 감소하여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이다.
③ X. 순자본유출 감소와 외환시장 내 원화공급 감소까지는 맞지만, 원화공급이 줄면 원화가 절상되어 원/달러 환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이다.
④ O. 재정적자 증가는 국민저축을 감소시켜 국내 이자율을 올리고, 그 결과 순자본유출이 감소한다. 순자본유출 감소는 외환시장에서 공급되는 원화의 양을 줄이므로 원화가 절상되고, 1달러당 원화표시 환율인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오답 포인트

재정적자 증가를 곧바로 대외자금 의존 확대로 연결해 순자본유출 증가라고 착각하면 ①, ②에 끌리기 쉽다. 또 원/달러 환율을 달러가치로 읽으면 원화 절상인데도 환율 상승이라고 오판하여 ③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방경제 거시문제는 저축 변화가 먼저인지부터 확인한 뒤 이자율, 순자본유출, 외환시장의 자국통화 공급, 표시된 환율 방향을 차례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적자 확대는 저축 감소, 이자율 상승, 순자본유출 감소, 원화공급 감소,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6. 지난 2년간 갑(甲)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보기>와 같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할 때,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갑국의 자연실업률은?

<보기>

	2019년	2020년
인플레이션율(%)	5%	9%
실업률(%)	10%	8%

① 7.5%

② 10%

③ 12.5%

④ 1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할 때 같은 필립스곡선 위의 두 점을 이용해 직선식을 세우고, 그 식으로 자연실업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9년은 인플레이션율 5%, 실업률 10%이다.
2020년은 인플레이션율 9%, 실업률 8%이다.
구해야 할 값:
갑국의 자연실업률이다.
주의할 조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므로 두 관측치는 같은 필립스곡선 위의 점으로 본다.

사용할 공식

선형 필립스곡선을 $\pi = a - bu$로 둔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두 관측치가 주어졌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므로, 두 점을 지나는 하나의 단기 필립스곡선을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두 점은 $(u, \pi) = (10, 5), (8, 9)$이다.
2. 기울기는 $\Delta\pi/\Delta u = (9-5)/(8-10) = 4/(-2) = -2$이다.
3. 따라서 필립스곡선은 $\pi = 25 - 2u$이다.
4. 이 식에서 인플레이션율이 0일 때의 실업률을 구하면 $0 = 25 - 2u$이므로 $u = 12.5$이다.
5. 따라서 자연실업률은 12.5%이다.

선지 판단

① X: 7.5%는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이 5%에서 0%로 5%p 내려가면 이 직선에서는 실업률이 2.5%p 올라가야 하므로 10%에서 12.5%로 가야 한다. 틀린 표현은 자연실업률을 7.5%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2.5%이다.
② X: 10%는 2019년의 실제 실업률일 뿐 자연실업률이 아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이미 5%이므로 자연실업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관측된 실업률을 그대로 자연실업률로 둔 점이며, 올바르게는 필립스곡선을 연장해 12.5%를 구해야 한다.
③ O: 두 관측치로 구한 필립스곡선이 $\pi = 25 - 2u$이므로 $\pi = 0$일 때 $u = 12.5$가 된다. 따라서 12.5%가 맞다.
④ X: 15%는 인플레이션율 1%p 변화와 실업률 1%p 변화를 같은 비율로 오해한 값에 가깝다. 실제 기울기는 -2이므로 인플레이션율 5%p 하락에 필요한 실업률 상승은 5%p가 아니라 2.5%p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실업률을 15%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2.5%이다.

오답 포인트

2019년의 10%를 자연실업률로 바로 읽거나, 기울기 계산에서 $\Delta\pi/\Delta u$의 부호와 크기를 잘못 잡으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제는 표의 두 점을 직선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곡선 계산형은 먼저 좌표를 (실업률, 인플레이션율)로 정리하고, 두 점으로 직선식을 만든 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인플레이션율 또는 실업률을 대입해 값을 읽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두 점이 주어지면 필립스곡선도 직선식으로 바꿀 수 있고, 기울기부터 구하면 최종값이 바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새고전학파의 주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② 새고전학파의 접근방법은 총수요곡선의 이동이 총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고전학파의 견해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③ 예상된 총수요확장정책은 단기적으로도 물가만 상승시킬 뿐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정책무력성의 명제를 제시했다.

④ 경제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무력성 명제, 그리고 예상된 정책과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합리적 기대는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 오류 없이 미래를 예상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정책무력성 명제는 예상된 총수요 확대정책은 물가만 올릴 뿐 산출량과 고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적 시장청산과 통화중립성을 복원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은 정보오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물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체계적인 정책은 미리 예상되어 임금과 가격에 반영된다는 논리의 출발점이다.
② O: 새고전학파는 케인즈식 수요관리보다 고전학파적 시장청산과 통화중립성을 복원하려 했다. 따라서 총수요정책이 실물보다 물가에 주로 반영된다는 고전학파적 방향으로 회귀했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정책무력성 명제의 핵심은 예상된 총수요 확장정책이 단기에도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고 물가만 올린다는 점이다. 새고전학파는 체계적 정책이 이미 기대에 반영된다고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표현이다.
새고전학파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정보오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산출량과 고용,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정책무력성과 ④의 비예상 정책 효과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틀린다. 새고전학파는 예상된 정책에는 무력성을 주장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의 단기 효과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고전학파 문항은 먼저 정책이 예상된 것인지 예상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한 뒤, 예상된 정책이면 물가만 변하고 비예상 정책이면 단기 실물효과가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새고전학파는 예상된 정책에는 무력성, 예상하지 못한 정책에는 단기 실물효과 가능성이라는 구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 간에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하자. 우리나라 물가가 3%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가 1% 상승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2% 절상된다.

②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2% 절하된다.

③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4% 절상된다.

④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4% 절하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서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 차이가 환율변화율을 결정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3%, 미국 물가상승률 1%
구해야 할 값: 원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주의할 조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므로 원화의 상대적 구매력이 더 크게 떨어진다.

사용할 공식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서는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의 통화가 그 차이만큼 절하된다. 따라서 원화의 달러화 대비 변화율은 $3\% - 1\% = 2\%$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양국의 물가상승률만 주고 통화가치의 방향과 크기를 묻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바로 적용하면 된다.

계산 과정

1.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 미국 물가상승률은 1%이다.
2. 물가상승률 차이는 $3\% - 1\% = 2\%$이다.
3. 물가가 더 많이 오른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2% 절하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2% 절상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2% 절상"이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으므로 원화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져 올바르게는 "2% 절하된다"가 된다.

② O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2%포인트 높으므로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라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2% 절하된다. 방향도 절하이고 크기도 2%로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4% 절상"이다. 물가상승률 차이는 4%가 아니라 2%이고, 우리나라 물가가 더 많이 올랐으므로 절상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2% 절하된다"가 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4% 절하"이다. 절하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절하율을 두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아니라 잘못 계산했다. 올바르게는 "2% 절하된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절상과 절하의 방향을 거꾸로 잡거나, 3%와 1%를 더해서 4%로 보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은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묻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맞아도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대적 구매력평가설 문제는 먼저 어느 나라 물가가 더 많이 올랐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계산한 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의 통화가 그 차이만큼 절하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서는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의 통화가 물가상승률 차이만큼 절하된다.

NoteBase

문 19. 갑(甲)과 을(乙)은 하루에 8시간을 X재와 Y재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은 갑(甲)의 경우 $2X + Y = 16$, 을(乙)의 경우 $X + 2Y = 16$ 이다.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은 을보다 X재와 Y재 모두에 있어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② X재와 Y재를 각각 240개씩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갑이 을보다 더 짧다.

③ 전문화(specialization)를 하여 X재와 Y재를 1대1로 교환하면, 갑과 을 모두 이득을 본다.

④ 갑이 X재의 생산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하루 8시간 동안의 생산가능곡선이 $2X + 3Y = 48$이 되었다면, 갑은 을보다 X재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에서 각 재화의 최대생산량과 기회비용을 읽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분하고, 교역조건이 상호이득을 주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우위는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이다.
비교우위는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 있다.
갑의 생산가능곡선은 $2X + Y = 16$이므로 최대생산량은 $X = 8$, $Y = 16$이고, X 1개의 기회비용은 Y 2개이다.
을의 생산가능곡선은 $X + 2Y = 16$이므로 최대생산량은 $X = 16$, $Y = 8$이고, X 1개의 기회비용은 Y 0.5개이다.
따라서 갑은 Y재에, 을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은 Y재는 하루 16개, 을은 8개를 생산하므로 갑이 Y재에서 절대우위이다.
그러나 X재는 갑이 8개, 을이 16개를 생산하므로 X재에서는 을이 절대우위이다.
틀린 표현은 "X재와 Y재 모두에 있어서 절대우위"이다. 올바르게는 갑은 Y재에만, 을은 X재에만 절대우위가 있다.

② X
갑은 X재 240개 생산에 240시간, Y재 240개 생산에 120시간이 걸린다.
을은 X재 240개 생산에 120시간, Y재 240개 생산에 240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갑이 두 재화 모두에서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없다. 두 재화를 각각 240개씩 만든다면 총소요시간은 둘 다 360시간이다.
틀린 표현은 "갑이 을보다 더 짧다"이다. 올바르게는 X재는 을이 더 짧고, Y재는 갑이 더 짧다.

③ O
갑은 X재 1개를 직접 만들면 Y재 2개를 포기해야 하므로 Y재 생산에 특화하는 편이 유리하다.
을은 Y재 1개를 직접 만들면 X재 2개를 포기해야 하므로 X재 생산에 특화하는 편이 유리하다.
교환비율이 1대1이면 갑은 Y재 1개를 주고 X재 1개를 얻어 직접 생산보다 유리하고, 을도 X재 1개를 주고 Y재 1개를 얻어 직접 생산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둘 다 이득을 본다.

④ X
교육 후 갑의 생산가능곡선이 $2X + 3Y = 48$이면 최대생산량은 $X = 24$, $Y = 16$이다.
이때 갑의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 2/3개이고, 을의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여전히 Y 0.5개이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쪽에 있으므로 X재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을에게 있다.
틀린 표현은 "갑은 을보다 X재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이다. 올바르게는 갑의 X재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X재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을에게 있다.

오답 포인트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같은 개념으로 섞으면 ①과 ④를 잘못 고르기 쉽다. ④는 갑의 X재 최대생산량이 24개로 커졌다는 점만 보고 비교우위도 넘어갔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비교우위는 최대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곡선이 주어지면 먼저 X축 절편과 Y축 절편으로 최대생산량을 읽어 절대우위를 본다. 그다음 기울기 또는 절편을 이용해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판단한다. 교역이 서로 이득인지 볼 때는 교환비율이 두 사람의 기회비용 사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이다. 갑은 Y재, 을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문 20. 파전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파전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파전 시장은 경쟁적이며, 김치전은 파전의 대체재이다.)

① 김치전 가격의 하락과 파 가격의 하락
② 김치전 가격의 하락과 파 가격의 상승
③ 김치전 가격의 상승과 파 가격의 하락
④ 김치전 가격의 상승과 파 가격의 상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체재 가격 변화와 생산요소 가격 변화가 각각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균형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파전과 김치전은 대체재이다.
- 파는 파전 생산에 들어가는 투입요소이다.
- 파전 가격 하락 여부는 수요 이동과 공급 이동이 각각 가격에 미치는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핵심 개념

-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관계이다.
- 생산요소 가격은 생산비를 바꾸어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 이 문제에서는 김치전 가격 하락이 파전 수요를 감소시키고, 파 가격 하락이 파전 공급을 증가시킨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각 변수 변화가 파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을 움직이는지 먼저 나눈 뒤, 그 이동이 균형가격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김치전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인 파전의 수요가 감소하여 파전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파 가격이 하락하면 파전 생산비가 낮아져 공급이 증가하므로 파전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는 모두 파전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①이 옳다.

② X
- 김치전 가격 하락은 파전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을 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 그러나 파 가격 상승은 생산비 상승이므로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 틀린 부분은 두 변화가 함께 파전 가격을 반드시 하락시킨다고 보는 점이다.
- 올바르게는 가격 하락 효과와 가격 상승 효과가 동시에 있어 최종 가격 방향이 불확실하다.

③ X
- 김치전 가격 상승은 대체재인 파전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 파 가격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 틀린 부분은 두 변화가 함께 파전 가격을 반드시 하락시킨다고 보는 점이다.
- 올바르게는 가격 상승 효과와 가격 하락 효과가 동시에 있어 최종 가격 방향이 불확실하다.

④ X
- 김치전 가격 상승은 파전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올린다.
- 파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파전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가격을 올린다.
- 틀린 부분은 이 조합이 파전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고 보는 점이다.
- 올바르게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겹쳐 파전 가격은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대체재 가격 변화는 수요를, 생산요소 가격 변화는 공급을 움직인다는 축을 섞으면 오답에 걸린다. 특히 ②와 ③은 한쪽은 가격 하락, 다른 한쪽은 가격 상승 요인이므로 결과가 불확실한데, 이를 한 방향으로 단정하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 변화가 보이면 먼저 수요 이동으로 처리하고, 생산요소 가격 변화가 보이면 공급 이동으로 처리한다. 그다음 각 이동이 균형가격에 미치는 방향을 따로 표시해 같은 방향이면 확정하고 반대 방향이면 가격은 불확실하다고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체재 가격은 수요를, 생산요소 가격은 공급을 움직인다. 수요 좌측 이동과 공급 우측 이동이 겹치면 가격은 하락한다.

NoteBase